

시끌벅적 e-스타



'어글리 몬스터' 정체를 밝혀라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등 위에 10cm 길이의 날개 한 쌍을 달고 있는 고양이와 바다 괴물로 인터넷이 들쭉거리고 있다. 중국의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센양에 살고 있는 한 살 난 수컷 고양이는 등에 10cm의 날개 한 쌍이 나 있다. 원래는 작은 돌기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10cm로 자라면서 날개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했다. 날개 때문에 '천사 고양이'라는 애칭도 붙었다. 고양이의 상태를 점검한 수의사도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로 생각했으나, 고양이의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비슷한 '바다 괴물'도 화제다. 최근 아프리카 기니 해안에 떠밀려온 네 개의 발과 엄청난 큰 입, 온 몸이 긴 털이 나 있는 괴생명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바다 괴물'로 불리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프라우다 인터넷판은 이 바다 괴물이 '어글리 몬스터'로 불리며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동물은 순식간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말에는 남극해에서 몸통 길이가 10m정도이고 무게 450여kg의 대왕오징어가 잡히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언제 하려고?

잠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다. 그런데 부시럭 소리에 깬 아내가 하는 말. "지금 하려고?" 힐끗 쳐다보곤 아무 말없이 불을 켜더니 요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내가 하는 말. "불 켜고 하려고?" 머리맡에 둔 안경을 찾아 썼더니 가웃거리며 아내가 하는 말. "안경 쓰고 하려고?" 인상쓰며 문을 열고 나갔더니 눈을 반짝거리며 아내가 하는 말. "쇼파에서 하려고?" 못들으면 그냥 나가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시고 있자니 침을 꼴깍 삼키며 아내가 하는 말. "물 먹고 하려고?" 아내에게도 한집 가득 따라주고 도로 들어와 잠을 청하려 하니 실망한 눈으로 쳐다보며 아내가 하는 말. "새벽에 하려고?"

■내 골프채 줄거야?

젊은는 마누라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만약에 말이죠... 만약 내가 죽으면, 여자를 새로 얻어서 재혼하실거예요?" 남편: "응, 그렇지도 모르지..." 부인: "재혼을 한다면 그 여자도 이집에서 살겠죠?" 남편: "아마 그렇게 되겠지" 부인: "그녀를 내 침대에서 재울 거예요?" 남편: "물론 그래야겠지" 부인: "내 옷도 입히구요?" 남편: "그럴 수도 있을거야" 부인: "내 골프채도 쓰게 할 건가요?" 남편: "그건 절대 안될거야" 부인: "아니 왜?" 남편: "그 여자는 왼손잡이거든..."

■관계자의 출입금지

어떤 산부인과에 한 임신부가 실려왔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침대에 실려가는 그 임신부 옆엔 남편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가 있었다. "여보! 여보! 조금만 참아!" "아악~" 병원복도를 달려 그 임신부를 실은 침대가 분만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같이 들어가려 했다. 그때 간호사가 "관계자의 출입금지입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정색을 하며 하는말 "내가 저 여자의 관계자예요"

■살아가는 동안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다. 20대: 남편을 위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한다. 30대: 고급 레스토랑에 외식을 나간다. 40대: 하루 종일 미국극단 먹인다. 남편이 외박을 했다. 20대: 너죽고 나살자고 달려든다. 30대: 일때문에 야근을 했잖아~ 하며 이해하려 든다. 40대: 외박했는지도 모른다. 설겜이 하는데 남편이 영영이를 툭 때렸다. 20대: 아가 했잖아~. 좀 자제하자 우리~ 30대: 자기도 참, 부끄럽잖아. 40대: 이 양반이 뭘 잘 못 먹었나. 설겜이나 좀 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왔다. 20대: 아저씨~ 좀 깎아주세요~ 30대: 아저씨 앞으로 자주 올테니깐 깎아 주실 거요? 40대: "그냥 만원에 줘요."하고 가져가 버린다. 임신을 했다. 20대: 남편이 좋아서 들쳐업고 동네 한바퀴를 돈다. 30대: 애 하나 더 생겨서 시들했던 부부관계가 회복된다. 40대: 왜 실수했나고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들들 볶는다.

뉴스퀴즈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쇼터'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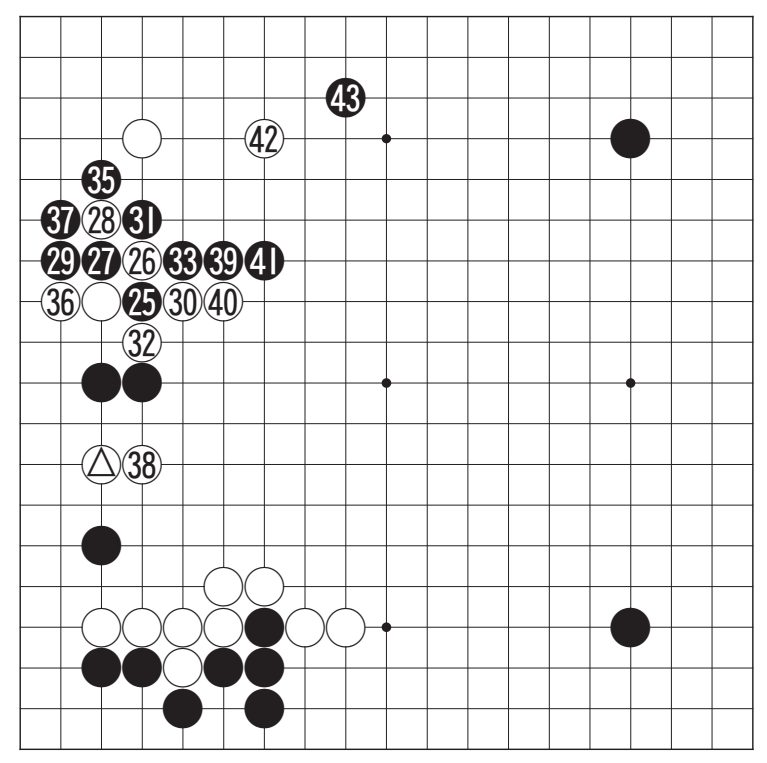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음 4월 1일 辛亥)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Fortune text for each day.



제16회 광양일보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상상을 불허한 대반발 3보(25~43) 백 김광식 5단 (주 송림) 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김광식 5단이 정석에서 손해본 것을 만회하러 하려는 듯 백 2로 침입하여 강공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수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38에 누르는 것은 넘겨줘서 싱겁다고 보고 김영수 5단이 25로 붙여 성동격서의 응수타진을 던져간다. 이후의 응수를 보아 태도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서로가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는만큼 기세가 부딪치며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반상을 흔들고 있다. 백 26로 젖힌 것도 승돌릴 여지를 주지않겠다는 강수며 28, 30으로 못 짓기도 기세. 흑이 '참고도'의 1로 이어주면 백 2를 선수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기세와 반발을 중시하는 김영수 5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반발을 해버렸다. 흑 31이 상상을 불허하는 초강수로 갑작스런 듯박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흑 43까지 주도권은 흑이 갖고있는 듯 하나 백 유리처럼 보이는 결말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문명근, 입신(入神) 문명근 8단이 입신(入神)의 반열에 오르는 등 14명의 기사들이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16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문 8단은 1975년 입단 이후 32년 만에 9단으로 승단했다. 한국기원 소속 9단은 총 43명. 이번에 승단한 기사들은 한국바둑리그 예선과 LG배 세계기왕전 예선, 물가정보배 예선 등을 통해 승단하게 됐다. 안관욱·김만수·노준환 6단은 7단으로, 박승문·박병규·허영호 5단은 6단으로, 최원용·육득진 4단은 5단으로, 김지석·김형환·서건우 3단은 4단으로, 최병환·김수용 초단은 2단으로 각각 한 계단씩 올라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Language (English, Japanese, Chinese, Korean), Title, Content, and Source. Includes phrases like 'Please take your time', '難(むずか)しいですね', '我喜欢大家庭', and '自勝者强 (자승자강)'. Source: Donga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